



“우리에겐 길을 잃을 자유가 있다”

비선형의 지도를 따라 더듬거리며 수습하는 문학의 잔해

『V섬의 검은 짐승』

2014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해, 정교한 문장과 독특한 사고실험으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구축해온 양선형의 첫 중편소설

ISBN 979-11-984817-0-2 03810 / 230쪽 / 양장 / 값 10,000원 / 출간일 2023년 10월 30일

언론사 문화부 문학 담당 기자, 인터넷서점 홍보 담당자에게 보내드립니다.

사단법인 문학실험실(대표 이인성) | 담당 최하연 (편집주간) 010-4212-0752

환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길을 잃는 것은 소설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인간의 편이 아닌 소설의 편에 선 소설가”(김정연)로 평가받으며 그간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적 소설을 선보여왔던 양선형의 첫 중편소설이 나왔다. 이번 소설은 서해 접경지의 실제 공간으로도 유추가 가능한 V섬에서 이뤄지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양선형만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전모를 파악하기 불가능한 이야기의 미로 속에서 환상적으로 고립되는 경험을 통해, 독자는 소설 읽기의 새로운 즐거움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구성되는 것은 현실인가, 이야기인가. 과연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인지한 채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구성된(영상과 증언을 포함한 모든 텍스트) 것이 현실을 초과한 현실이라는 인식은 평범할 수 있지만, 구성하는 자가 스스로 자신이 구성한 현실 속에서 길을 잃은 채, 그것을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의 반복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현실이라면, 미로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때에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소설’ 그 자체뿐일지도 모른다.

“작가로서 언제나 내가 소설을 통해 갈망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이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다. 나는 비유나 수사로서가 아니라 진실로 그런 움직임이 글을 쓰는 나의 처소에서 현행적으로 계속되길 원하며, 길을 잃어버리면 서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고유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_작가의 말

선형적인 비선형을 통해 더듬거리며 수습하는 문학의 잔해

이 소설을 읽으며 성급한 상상은 금지되어야 한다. 의식으로부터 뺏어 나온 언어의 다채로운 변형 속에서 소설의 문장을 소설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오로지 V섬의 검은 짐승을 불러내기 위한 관찰과 기억에서 비롯된 주술적 서술의 방식만이 존재한다. 소용돌이 속에 소용돌이가 자라나고 있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누설되듯 소용돌이들이 끊고 있다. 소용돌이의 질서와 형태를 만드는 일. 이야기의 맥락은 끊어지지 않는다. 김태용 소설가의 평대로 독자는 “그가 만든 비선형적 지도를 따라 기꺼이 소설의 소용돌이 속으로 떨어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듬거리며 문학의 잔해를 수습하며, 다른 층위의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양선형은 나를 싣고 간다. 어디에서? 모르겠다. 어디까지? 모르겠고, 여기는 일단 아니고, 실려서 나는 가고, 저기도 아닌데, 상관없고, 나는 파도에 실려 가고, 앞사귀에 실려 가고, 떠내려가고, 실려 가는 것은 나, 나인 것 같고, 실려 가면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무슨 생각? 상관없고, 읽다 보면 쓰고 싶고 쓰다 보면 읽고 싶고, 이런 굴레가 생겼고, 상관없고, 양선형, 보간법이라고 쓰고 싶고, 끝도 없고, 양선형, 시작도 없고.”_박지일 시인

“『V섬의 검은 짐승』은 모험 소설, 해양 소설, 성장 소설, 심령 소설, 내면 소설, 관념 소설, 약물 소설, 사변 소설, 동물 소설, 이 모든 소용 없는 장르를 뒤섞어 버리는 미친 소용돌이이다! 양선형은 검은 짐승의 탈을 쓰고, 스프처럼 끓고 있는 의식의 질서와 형태를 만들며, 쓰고 있다. 쓰고 있다고 믿는다.”_김태용 소설가

본문 중에서

V섬은 여행지나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섬은 아니었다. 육지에서는 정치적인 장소, 더 정확하게는 군사적인 분쟁이 발발했던 장소로 유명한 편이었다. 오래전 V섬이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회자되었던 적이 있었다. 언론의 조명을 포함해 그때가 V섬에 가장 많은 외부인이 드나들던 시기였다. 국경 너머에서 발사된 포탄 두 발이 V섬 안쪽에 떨어졌다. 질푸른 해무가 자욱하게 끼어 유난히 오싹하고 축축했던 저녁 무렵이었다. (69p)

그러나 감독은 가끔 준비되지 않은 그에게로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이때 카메라 바깥을 배회하는 그와 카메라 안쪽으로 입장한 그가 분간될 수 없이 합쳐지곤 했다. 여기에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있는 카메라를 일부러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카메라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자신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열심히 부인할 때 생성되는 불일치가 진짜 흥미로운 법이죠. (15~16p)

중요한 사건은 반드시 삶 속에서 한 번 이상 다시 반복됩니다. 작품 또한 새로운 반복을 창조해 사건을 구원하는 작업이지요. 인간은 반복할 때마다 사건 속에 태엽처럼 휘감겨 있던 진정한 의미가 풀려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대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벌어진 사건 앞에서의 입장과 선택을 정하는 일일 따름이지요. 눈부신 에피파니와 어두컴컴한 야만 속에서는 예리한 칼날처럼 살갓을 베고 지나가는 침묵이 있을 뿐입니다. (26p)

우명수 군은 V섬에 사는 유일한 인간 아이이며, 우명수 군을 보살피고 양육하기 위해, V섬이 스스로의 생태계에 잠재된 비현실적인 역량을 개방해 영험하고 괴기한 판타지나 현명한 지혜가 잠들어 있는 동화의 무대로 자신의 장르와 용도를 변경한다고 해도, 아무도 V섬을 향해 시비를 걸지 못할 것이다. (114p)

저자 소개 : 양선형

1990년 광주에서 태어나, 2014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했다. 소설집 『감상 소설』 『클로이의 무지개』 『말과 꿈』을 펴냈다.

차례

- 1.
- 2.
- 3.
- 4.
- 5.

_感•소용돌이다! _김태용(소설가)